

2023. 12.24.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요한복음 John 1:18

제목: 독생자 하나님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ESV) 1:18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성탄의 의미: 구원자, 메시아, 주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Christmas)이 무슨 날인지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사랑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영웅’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눅 2:11, 예수님의 첫번째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의 내용을 보십시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ESV) Luke 2: 11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이 짧은 문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구원자, a savior), 그리스도(메시아), 주(The Lord).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savior)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인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구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어 세운 하나님의 종,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언에 메시아는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보냄 받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Lord)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물질과 비물질, 시간과 공간,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왕이시지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냥 평화를 전하러 온 영웅이 아니라,
종교 창시자 혹은 교주가 아니며, 윤리적인 표준을

만들고 모범을 보인 성인이 아니며, 2000 년 전의 전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낯설고 힘들었던 새로운 땅에서 수백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지우고, 인디언에게 감사하던 날로 바꾸고 있는 미국의 역사학자들과 정치인들처럼, 성탄절은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의 모범을 보인 비폭력 평화주의자 예수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 의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Me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day’로 바꾸며,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전통을 남기려는 이 시대의 흐름을 봅니다. 성탄절은 다 아는데, 성탄절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인지는 다 모릅니다.

성탄의 의미: 독생자 하나님 the only Son

God

성탄절의 의미에서도 확인했듯이, 성경과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서 3:1 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ESV) Hebrews 3:1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줄 성경으로 오늘 본문 요 1:18 절을 보겠습니다.

표준새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표준새번역)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ESV) 1:18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Greek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made him known.

(개역개정)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표준새번역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에 각주 있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라고 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아래에 있는 개역개정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에 ‘독생자’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ESV 나 NIV 등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에도 ‘the only God’, ‘the only Son’, ‘Only One, who is God’을 소개합니다.

사람 예수 = 독생하신 하나님 = 하나님이신 독생자
only God = the only Son = only One, who is God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고, 천지와 모든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으며, 2000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니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표준새번역) 이사야 9:6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ESV) Isaiah 9: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기적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Wonderful 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기묘하다'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해도 엄청난데,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인간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빌 2 장은 이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ESV) Philippians 2:6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개역개정)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ESV) 2:7 but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men.**

**(개역개정)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ESV) 2:8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독생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며 자기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모든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 인간의 육체 안에 스스로를 구겨 넣어 가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신 삶이 기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적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받으신 고통은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표준새번역) 이사야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ESV) Isaiah 53: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표준새번역) 4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ESV)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표준새번역)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ESV)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인간의 몸을 입는 것만으로도 고통인데, 인간으로 놀림받고 질병을 안고 살아가며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이 모두 인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신 고통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겪은 이 고통보다 독생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고통은 더 큼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생각도 감정도 결정도 함께 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것이 인간 존재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인간의 존재 양식이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삼위일체가 깨어집니다. 마 27:46 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7:46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ESV) Matthew 27: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셨을 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부활할 줄 아셨고, 다시 하나될 줄 아셨다고 해도 고통은 고통이며, 죽음은 죽음입니다.

성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독생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미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오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어(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자녀들, 부모, 친구들 되게 하소서
-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인간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실 만큼, 인간으로 죽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실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2.24 독생자 하나님. 요한복음 1:18)

1.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구원자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주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3.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을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까지 깨셨다는 사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성탄과 연말을 지나며,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개인의 계획과 각오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